

조광조를 각인시킨 폐비 신씨 복위 상소 사건

정국의 뜨거운 감자, 폐비의 복위 문제

조광조(趙光祖:1482~1519)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인물로 꼽히고 있다. 16세기 초반 비범한 카리스마를 무기로 등장하여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도덕정치의 실현을 부르짖고 이를 직접 실천했던 인물 조광조. 그가 정계에 입문하여 주목을 받은 데에는 당시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언론으로서의 힘이 있었다. 조광조는 1510년 과거 초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합격하고, 1515년 성균관에서 치른 알성시에도 2등으로 급제하여 국왕인 중종의 주목을 받았다. 반정공신들의 득세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종은 성균관을 찾아 새로운 인재를 구하려 했고, 이때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옛 성인의 이상적인 정치를 다시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책문(策問)을 던졌다. 조광조는 '정실하게 도를 밝히고 항상 삼가는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요체로 삼을 것'을 핵심 요지로 하는 답안을 냈는데, 이 책문을 계기로 가능성만 있었던 학자 조광조는 중종의 파격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1515년 11월 조광조는 조선시대 언론기관인 사간원의 언론직인 정언(正言)이 되었고, 정언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의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발단이 된 것은 중종의 정비였다. 가 반정 직후 바로 쫓겨나 폐비(廢妃)가 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



氏:1487~1557)의 복위를 요청한 박상(朴祥)과 김정(金淨)의 상소였다.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의 딸로서, 중종을 왕위에 추대한 공신들은 반정 직후 왕비를 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

다. 왕비가 죄인 신수근의 딸이므로 국모로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다. 반정공신들에게는 언젠가 아버지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중종으로서는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내쫓아야 할 형편이었지만 반정에 의해 웅립된 만큼 공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단경왕후는 폐위되어 쫓겨나고 말았다. 단경왕후가 폐위된 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가 왕비가 되었지만, 1515년(중종 10) 인종을 출산한 직후 승하하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단경왕후의 복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도 중종의 왕비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비의 복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인물은 담양 부사 박상과 순창 군수 김정이었다. 이들은 중종의 구언에 응하여 상소문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먼저 폐비 신씨가 폐출된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신씨의 폐출은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반정 초에 3대장(박원종, 성화안, 유순정)이 신수근을 제거한 뒤 왕비가 그 딸이므로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폐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왕을 위협하기를 다리 사이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희롱하듯 하고 국모를 내쫓기를 마치 병아리 팽개치듯 하였다."고 하면

光祖

서 단경왕후를 폐위시킨 반정공신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과 박상의 상소가 정국에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한 공신 세력들은 반격에 나섰다. 김정과 박상이 “사특한 의견을 올렸다.”면서 국문을 할 것을 청했고, 중종은 결국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유배시켰다.

조광조, 할 말을 하는 언론임을 각인시키다

김정과 박상의 상소문 파동이 잦아들 무렵 이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인물이 조광조였다. 조광조는 언론직을 제수 받은 지 불과 이틀 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상과 김정을 유배시켰던 대간(臺諫)들의 전원 파직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조광조는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일로서, 통하면 다스려져 평안하고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됩니다. 말이 혹 지나쳐도 마음을 열어놓고 너그럽이 받아들이는 것은 혹 언로가 막힐까 염려해서입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말이 지나쳐도 언로는 열어놓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박상과 김정이 왕의 구언(求言)에 응하여 의견을 올린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조광조는 대간이 그 상소를 그르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금부의 낭관(郎官)을 보내어 잡아오기까지 한 조치는 지나치다고 지적한 후에, “김정 등에 대하여 재상(宰相)이 혹 죄주기를 청하더라도 대간은 구제하여 풀어 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언로를 훼손하여 먼저 그 직분을 잃었으니, 신이 이제 정언이 되어 어찌 구태여 직분을 잃은 대간과 일을 같이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양사(兩司)의 대간을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여십시오”라면서, 양사,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을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광조는 박상과 김정의 폐비 복위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언로를 수용하지 않고 이들을 국문할 것을 청한 대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시켰던 것이다.

조광조는 언로가 막히는 것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정과 박상 등이 말한 일이 마땅하지는 않으나, 그 상소는 버려두고 따지지 않아야 납언(納言)하는 덕이 드러나거니와, 재상도 왕께서 그 말을 쓰지 않으시는 줄 알고서 시비를 논하지 않았는데, 대간이 굳이 죄주기를 청하여, 왕을 불의에 빠뜨리어 간쟁을 거절하는 조짐을 만 들어서 만세에 성덕의 누가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한 뒤에는 국가에 큰일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구언할 수 있겠으며, 구언하더라도 누가 감

히 말하겠습니까? 외방(外方)의 초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자가 김정과 박상 등의 일을 길에서 듣고서 그만두니, 치세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의 대간이 아직도 다 관직에 있는데 어찌 신과 서로 용납되었습니까?”

조광조는 왕이 납언(納言) 즉 언론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을 탄압하는 국면을 마련하면 결국에는 지방의 선비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자신도 물러날 것임을 시사하였다. 조광조의 논리에 반박하기가 곤란해 진 중종은 “이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고, 대신들의 건의 형식으로 박상과 김정의 국문을 청한 대간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갓 언론직에 진출한 조광조의 요구가 관철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급 언론 조광조는 전국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고, 중종은 조광조에게 파격적인 승진으로 화답했다. 조광조는 1518년 마침내 언론의 최고 직책인 대사헌에 임명되어 개혁정치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가 조광조의 초기 등장에 언론을 중시하는 정치관이 있었고 이것이 그의 정치적 성장에 큰 자산이 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시대를 ‘개혁의 시대’로 인식한 조광조는 이후 시대의 부정과 모순을 극복해가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력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해 가게 된다.